

보 도 자 료 2014. 5.20.(화)	행사문의	김혜영 부연구위원 (02-3156-7106)
	언론담당	황애리 홍보담당 (02-3156-7296)
	보도일자	2014. 5.20.(화)
	※ 총 3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참여율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여럿

주민자치지원 기본법 제정 등 통해 여성의 주민자치 참여확대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여성역할 증대 방안” 을 주제로 제3차 여성현안포럼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여성가족부와 서울신문의 후원으로 오는 5월 21일(수) 오후 2시 4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여성역할 증대 방안” 을 주제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총재 이연숙)와 제3차 여성현안포럼을 공동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여성참여 확대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최금숙 원장은 “안전, 복지,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의 민감성 및 근접성에 기반하여 여성이 지역사회와 마을기업 발전의 주역으로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 이날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현황 및 정책과제”의 주제발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 김 부연구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의 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여럿”이라고 지적하며,

○ 향후 지역 주민자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 ① 주민자치지원 기본법 제정
- ② 양성평등기본법 실행체계 구축 시 대상 범위 확대
- ③ 기초자치단체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
- ④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 인재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

□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 후에는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나순희 전북 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염일렬 서정대 행정학과 교수, 김균미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붙임 1. 행사 개요

붙임 1 행사 개요

- 주제 :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여성역할 증대 방안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 후원 : 여성가족부, 서울신문
- 일시 및 장소: 2014.5.21.(수), 14:15~,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15-14:30	등 록
14:30-14:45	사회: 허태욱(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인사말씀 • 개회사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환영사 : 이연숙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
14:45-15:00	▶ 기조강연 • 주민자치 실질화란 무엇인가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
15:00-16:00	좌장 : 이연숙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 ▶ 주제 발표 • 여성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현황 및 정책과제 김혜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민자치 실질화와 여성 역할 전은경(서울 디지털문화예술대 교수) • 주민자치 공동체 참여를 위한 여성인재 양성 이상경(한국여학사협회 회장)
16:00-16:50	▶ 토 론 •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나순희(전북 주민자치회 공동회장) • 엄일렬(서정대 행정학과 교수) • 김균미(서울신문사 편집국 부국장)
16:50 -17:00	▶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